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22년 6월

휴먼러니짐

참가안내

[문화] 초딩들의 컬처랜드

★ 말 많고 탈 많은 대중문화, 어른들은 모르는 사용설명서

[문화] 마블의 히어로, 인문학으로 만나다

★ 화려한 CG 뒤 숨겨진 현실을 소환하라

[심리] 내 안에 너 있다

★ 심리학의 개념에서부터 확장해가는 관계의 인문학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즘”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즘” 게시판에서 신청 글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즘)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22년 6월 휴머니즘] 강좌후원금

초등부·중등부 문화 20만원(10강), 고등부 심리 10만원(5강)

▶ 회원은 80%만 납부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주 1회, 2시간입니다.
2. 오프라인 강좌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병행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강의는 초·중등부는 2022년 8월 28일까지, 고등부는 7월 9일까지 진행 예정이며 초·중등부의 경우 기간 중 2주의 휴강이 있습니다.

문화 초등

초딩들의 컬처랜드 (10강)

★ 말 많고 탈 많은 대중문화, 어른들은 모르는 사용설명서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오프라인> 6월 12일~8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전국의 초등학교에 PC방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한술 더 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원하는 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수업 내용이 ‘결그룹 댄스 따라잡기’, ‘각자 알아서 웹툰 정주행’, ‘게임 방송 단체 관람’ 같은 것들이라면? 진심으로 매일매일 가고싶어지는 꿈 같은 학교, 진짜 어디 없나요? 물론! 이런 학교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제발 공부 좀 하라는 어른들의 애원 섞인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초딩들은 즐기게 ‘더 재밌는 것’들을 찾아다니며 탄 짓을 합니다. 만화책, 유튜브, 스마트폰 게임, 연예인 얘기 등등... 대중문화에 대한 이들의 열렬한 관심은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의 본능(?)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두 어차피 매일매일 대중문화에 둘러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냥 즐기지 말고 ‘알고’ 즐겨라! 대중문화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에 무작정 휘말리지 말고 내게 이로운 방향으로 씹먹을 수 있도록 보다 현명한 사용법을 익혀봅시다!

.....

1강_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 대중문화는 몸에 나쁠까?

모처럼 찾은 주말의 영화관! 15금 판타지 영화의 관람을 놓고 아빠와 초딩 딸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어떤 대중문화는 인스턴트 음식만큼이나 몸에 나쁜 법이지. 벌써부터 저런 영화를 무분별하게 접하도록 놔둘 수는 없느니라! 흥. 다른 애들은 벌써 다 봤거든요? 나도 저 정도 영화는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어요! 양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당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건가요?

2강_ 초글링부터 잼민이까지 : 대중문화 속의 어린이

“어쩔티비 저쩔티비?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휴 저 잼민이들” 어른들이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은 영 모르겠다며 혀를 꼴꼴 찹니다. 언제부턴가 인터넷 방송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 ‘잼민이’라는 별명은 순식간에 ‘초글링’, ‘초딩’이라는 말을 밀어내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린이들끼리 서로를 잼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잼민이 앞에 꼭 짝꿍처럼 붙는 말이 있어요. 그건 바로 개념.없.는 잼민이. 어때요, 이 잼민이라는 말 마음에 드나요? 어린이면 다 개념 없다는 편견에 기분이 나쁜가요? 아니면 재밌고 친근한 별명 같아서 좋나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 당신은 잼민이입니다.

3강_ 스마트폰, 내 꺼야 엄마 꺼야? :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두고 벌이는 어른들과의 한판 승부

전쟁이 벌어졌다! 이름 하여 스마트폰 사용시간 대전! 맘껏 쓰려는 자 VS 최대한 막으려는 자. 최후의 승자는 누구? ‘알아서 쓸 수 있는데 왜 자꾸 뺏어 가냐’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네 모습, 문제 있다’는 어른들 사이의 갈등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툭 까놓고 토론 배틀을 벌여봅시다! 스마트폰, 얼마나 어떻게 써야 할까요?

4강_ 초딩들의 사회생활 : SNS를 하면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까?

핸드폰에 뭐 그리 볼 게 많아 온종일 붙들고 있냐고요? 우리 반 단톡부터 친구와의 갠톡까지 ‘까톡까톡까톡까톡!’ 까마귀처럼 쉴 새 없이 울어대는 알림음. 딴 애들은 다 하는데, 나만 빠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도 일종의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SNS에서의 인간관계, 당신은 둘 중 어떤 버튼을 누를래요? 좋아요 or 싫어요!

5강_ 가장 머물고 싶은 시공간에서 : 하루 종일 게임 생각만 하는 나, 중독일까?

요즘 애들의 새로운 놀이터는 스마트폰 화면 안이요, 모니터 속입니다. 특히나 남자 애들의 놀이문화는 게임 빼놓고는 논할 수 없을 정도예요. 방학 때면 아침부터 밤까지 컴퓨터 게임만 붙들고 있는 아이를 보며 어른들은 중독을 걱정하지만, 정말로 게임에 마약처럼 중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고 해요. 그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6강_ 문방구에서 틴트를 : 화장에도 나이 제한이 필요할까?

화장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틴트 정도는 기본으로 바른다고 해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는 화장을 하는 어린이 영상이 많이 올라와요. 사람들은 그 영상들의 어린이가 너무 예쁘고 귀엽다며 좋아요를 마구 마구 누릅니다. '내 눈은 왜 이러지? 내 코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거울 속 내 얼굴은 그 어린이들에 비하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신상 틴트라도 하나 더 사야하는 걸까요?

7강_ 내가 만약 아이돌 연습생이 된다면 : 성공한 아이들은 행복할까?

학교에서 나름 예쁜 외모로 유명한 당신! 길을 건다가 유명 기획사 직원에게 우리 회사 연습생이 되지 않겠냐며 명함을 받았어요. 주변에서는 원래 스타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훈련해야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냐!'며 얼른 가보라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며 콧방귀 끼는 가족들도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성공한 아이돌이 되는 미래, 꿈꿔 볼만 할까요?

8강_ 나만의 은밀한 문화생활 : 초딩들에게도 취향은 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은 방탄, 취미는 SNS, 시간 날 땐 웹툰 정주행하는 걸 즐겨하고, 최근엔 웹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어. 또 어릴 때부터 디즈니 영화를 좋아했거든. 디즈니 베이비돌을 사서 옷 갈아입히고 노는 것도 좋아해.” 당신의 취향은 어떤가요.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편인가요, 아님 남다른 면이 있나요? 누구나 생긴 것도 성격도 다 다른데, 취미생활만큼은 거기서 거기인 이유는 뭘까요? 내 꺼인 듯 내 꺼 같지 않은 취향의 뿌리를 찾아봅시다.

9강, 10강_ 내가 유튜버가 된다면 :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

모버실(모든 버전 실시간), 말랑이거래, 같이 공부해요, 엄마 몰래 게임 현실하기 등 어린이가 만드는 콘텐츠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한 번쯤은 이 영상들을 보고 즐기며 유명 유튜버, 천만 틱톡커가 되는 상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요즘 키즈 크리에이터의 영상들을 보다 보면 내 일상은 평범하고 초라하기만 한 것 같아서 괜히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도 예전보단 어린이가 직접 만든 문화들이 늘어나서 좋은

가요? 그런데 말랑이 거래 같은 게 어린이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유튜버가 된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요?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는 대체 뭘까요?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봐요! 분명히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문화 중등

마블의 히어로, 인문학으로 만나다 (10강)

★ 화려한 CG 뒤 숨겨진 현실을 소환하라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오프라인〉 6월 12일~8월 28일 오후 1시 〈일요강좌, 온라인〉 6월 12일~8월 28일 오후 3시 30분
오리엔테이션	※ 오프라인 :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 온라인 : 모든 강좌는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은 강좌 전 시간을 정해 접속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마블 코믹스는 DC코믹스와 함께 오랜 기간 미국 만화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이란 초강대국을 등에 업고 전 세계에 문화적 파급력을 과시하기도 했죠. 한국의 어른들도 중년부터 노인까지 가리지 않고 만화나 게임, 영화 등을 통해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등을 접하고 자란 기억이 있을 정도니 그 영향력은 그야말로 나라와 세대를 넘나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아이언맨> 개봉 이후, 연달아 나오는 마블의 히어로 영화에 전 세계는 열광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탄생한 지 100년이 다 된 마블의 구닥다리 히어로들이 현대와 와서 오히려 그 인기를 더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부쩍 화려해진 CG들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일까요? 혹은 마블의 히어로 영화들이 영화사에 다시없을 방대한 세계관을 가진 프랜차이즈 시리즈라서? 혹은 너무나 매력적인 배우들이 히어로들을 연기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전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다가가 볼까 합니다.

마블의 히어로들에게는 그것이 만화든 스펙터클한 영화든 언제나 시대를 관통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세상의 모습이 투영되어 왔습니다. 마블은 언제나 시대에 맞는 히어로들을 창조했고, 또 기존의 히어로들을 변화시켰으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왔습니다. 때문에 그 옛날 애국심을 대표했던 히어로들은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자유와 평등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남성 히어로의 들러리거나 섹시함만이 강조되었던 여성 히어로가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성소수자 히어로가 동성 파트너와 입 맞추는 장면이 별스럽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마블 스튜디오와 디즈니는 자신들의 콘텐츠를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는 작품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재미있다 없음을 넘어서 오늘날 히어로들을 마블이 제시하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읽어내면 좋을까요? 나의 일상과 삶은 이 히어로들의 삶과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멀까요? 그냥 영화일 뿐이니 즐기면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 함께 마블의 히어로들을 통해 세상을 향한 질문을 끄집어내 이야기 나눠봅시다. 인문학을 통해 세상의 숨겨진 의미를 찾는 작업으로 히어로들을 만나고 나면, 마블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재미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

1강_ 철갑의 페르소나 : 누가 진짜 아이언맨인가

아이언맨은 누가 봐도 슈퍼 히어로지만 그 안의 토니 스타크는 한낱 나약한 (비록 돈이 많지만) 인간에 불과합니다. 즉, 아이언맨은 슈트를 만들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비스 같은 첨단 기술로만 존재할 수 있는 히어로인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아이언맨까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토니 스타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속에는 기계장치만 가득할 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이언맨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혹시 진짜 아이언맨은 토니 스타크가 아니라 그가 입는 슈트 혹은 자비스가 아닐까요?

2강_ 때로는 헐크가 되고 싶어 : 헐크, 분노의 심리학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나는 내가 무엇이 되는지도 모른다. 내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내가 화가 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란 사실이다.”

이것은 히어로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어떤 초록색 괴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굳이 감마선에 노출되지 않아도 때로는 헐크가 되는 혹은 되고 싶은 누군가 (혹은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괴물로 변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록색 괴물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3강_ 타노스의 선택 : 절반의 생명을 희생시킨 정의

타노스가 스톤을 모으는 이유는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단순히 잔인한 악당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우주가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50%의 생명을 위해 50%의 생명을 희생시키려는 타노스의 계획. 그의 계획은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요? 어차피 어벤저스가 지켜줄 거니까 그런 고민은 필요 없다고요? 에이~ 하지만 어벤저스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4강_ 캡틴 아메리카의 변신 : 애국의 영웅에서 자유의 영웅으로

캡틴 아메리카는 그 이름처럼 미국이란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히어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히어로보다도 현실 세계 미국의 모습에 따라 그 성격을 변화시켜 온 캐릭터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에서 미국이란 초강대국의 역사와 변화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캡틴 아메리카에 투영된 미국의 현재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 모습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미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5강_ “나의 캡틴 마블은 이렇지 않아!” : 히어로물 속의 여성들

2019년 개봉한 영화 <캡틴 마블>은 개봉 전부터 주연배우가 캡틴 마블이라는 캐릭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만화를 영화로 옮기게 되면 만화 속 캐릭터를 현실로 재현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캐스팅 논란이 벌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캡틴 마블의 경우 주연배우가 캐릭터에 어울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못생겼다’, ‘웃지 않는다’, ‘뚱뚱하다’였기에 논란이 화제가 됐던 것이죠. ‘여성 히어로라기엔 외모가 부족하다’는 평가에 당시 어떤 사람들은 공감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캡틴 마블의 모습은, 여성 히어로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히어로물에 등장하는 여러 여성 캐릭터를 통해 그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6강_ 가장 이상한 슈퍼히어로들 : 엑스맨, 돌연변이라는 정체성

엑스맨의 세계에서 어떤 인간들은 돌연변이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 하며 심지어는 없애려고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들의 능력을 경계하며 지배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하실 건가요.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돌연변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돌연변이를 혐오하는 인간과 공존할 방법을 찾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실 건가요.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 번 반복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요.

7강_ 모두를 위한 영웅담 : 이터널스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터널스>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 4의 영화 중에서도 완성도나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유독 눈에 띄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등장하는 히어로들이 이 사회의 여러 소수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이 영화의 시도를 높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마블을 인수해 이터널스를 재탄생시킨 디즈니가 과거에는 자신들이 만든 여러 작품에서 차별적인 묘사를 반복해 비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터널스는 그 자체로 세상의 변화를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디즈니가 과거와 달리 세상의 변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공공이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과연 이터널스는 아직도 이 세계에 질게 드리워진 각종 차별을 걷어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8강_ 숨김없이 고하라 : 초인등록법을 둘러싼 끝장토론

영화 <캡틴 아메리카 : 시빌 워>의 원작인 마블코믹스 <시빌 워>는 초인들이 대중에게 신분을 공개하고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초인등록법을 둘러싼 히어로들의 갈등을 다룹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소코비아 협정이란 이름으로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죠. 결국 찬반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끝났지만 이제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단! 대답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우리가 사는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니까요.

9강_ 내 나이가 어때서 : 청소년 히어로 활동 금지령

전체 히어로의 숫자에 비해 많진 않지만, 마블의 세계관에도 청소년 히어로는 존재합니다. ‘청소년이 히어로의 능력을 갖는다? 너무 위험할 거 같아요!’ 마블의 세계관 속에서는 미국의 의회가 청소년 히어로 활동 금지령을 논의할 정도로 이 사실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네요. 아마 현실에 청소년 히어로가 존재했어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을까요? 같은 청소년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청소년은 강한 힘을 맡기기에는 너무 어리고 미성숙하다고 느끼시나요. 청소년은 과연 히어로의 힘을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일까요.

10강_ My Own Hero : 나에겐 어떤 히어로가 필요한가

여러분이 마블 코믹스의 작가라면 어떤 히어로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혹은 어떤 히어로를 창조해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영웅은 우리들의 잠재의식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불안과 콤플렉스가 만들어 낸 환상의 존재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말대로 슈퍼히어로가 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머릿속을 반영하고 있다면 어떤 히어로가 사랑받을 수 있을지 나에게는 어떤 히어로가 필요할지 조금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요?■

심리 고등

내 안에 너 있다 (5강)

★ 심리학의 개념에서부터 확장해가는 관계의 인문학

참가자	17~19세 고등부 청소년
개강	<토요강좌, 오프라인> 6월 11일~7월 9일 오후 1시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는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기가 힘듭니다. 위계적이고 경쟁적으로 짜인 직업이나 여타의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속에서 진실한 친구 하나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조차 내 마음을 터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과학인 심리학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학문입니다. 심리학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없을지 몰라도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 같은 내 마음을 서로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편리한 소재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그 학문을 깊이 알아간다고보다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기 위한 작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어쩌면 애초에 대부분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부란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 그것을 도구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내 속에 이미 있는 것이라기보다 너를 만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이 자리에 당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1강_ 슬픔을 잊어버린 이에겐 기쁨도 없다 :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심리학에 다가가기에, 아니 나의 마음에 다가가기에 가장 적절한 한 편의 애니메이션. 슬픔이 떠나면 기쁨만 남을 텐데 왜 이야기 속 기쁨이는 슬픔이를 찾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걸까요?

2강_ 너는 왜 성격이 그 모양이니? : 대상관계이론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행동의 원인은 과거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현재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미래의 나를 좌우할 수도 있겠군요. 자신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미래의 당신은 행복한가요?

3강_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 무의식

당신은 당신의 욕망에 충실한가요? 만약 욕망의 충족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참고 사는 누군가는 불행한 사람일까요? 드러내기엔 부끄럽지만 포기하기엔 너무나 간절한 딜레마를 품은 욕망의 상자를 살짝 들여다봅시다.

4강_ 알다가도 모를 너의 마음 : 방어기제

가장 멋진 가면을 써야만 가장 멋진 어른이 되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고 살지 않기 위해 누구나 가면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가면 너머에는 우리의 진짜 얼굴이 남아있을까요?

5강_ 여우와 신포도 : 인지부조화

너무나 먹고 싶었던 달콤한 포도였지만 너무 높아 따먹지 못하면 신포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여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교육공동체 나다 2022년 6월 휴머니즘 소개 마침■